

창사 28주년 기념식 “위대한 SBS를 향해 다시 뜨겁게 함께 나아가자”



창사 28주년 기념식이 1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명예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윤창현 노조위원장 등 2백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박정훈 사장은 기념사에서 올 한 해 SBS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경쟁력 1등과 거의 완벽한 언론자유를 구가했다고 자평하고, 거대 자본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을 빠르게 해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차원의 발상을 통해 '위대한 SBS'를 향해 노사가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윤세영 명예회장과 박정훈 사장, 윤창현 노조위원장 등은 기념 떡을 커팅하고 축하를 들며 창사 28주년을 축하했다.

한편, '올해의 SBS인'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등 SBS 빅 이벤트 중계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배성재 아나운서가 받았다. 우수상은 '애니멀봐'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유통 기회와 수익원을 개척한 이덕건 PD(교양5CP 소속), '특별사면과 평창', '라돈 침대 단독보도' 등 다수의 특종 보도를 한 강창완 기자(보도국 정책사회부), 스포츠 빅 이벤트 국 제방송센터 등 방송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분야에서 공을 세운 조동익 사우(기술기획팀)가 받았다.

또 '올해의 SBS팀'은 <미운 우리 새끼>, <집사부일체> 등을 통해 예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예능1CP, 편성안 조기 확정을 통해 원활한 제작 준비와 광고 판매에 기여한 편성팀, <SBS 8뉴스> 메인뉴스 시간대 시청률 1위 달성 등 SBS 보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보도본부 편집부가 수상했다.

박정훈 사장 기념사

SBS 가족 여러분!

제가 올해 시무식에서 '희망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말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먼저,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경쟁력 1등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거의 완벽한 언론자유를 구가했다고 자평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개의 스포츠 빅 이벤트와 지방선거, SDF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정한 정론을 지향하는 독심 있는 보도로 JTBC의 <뉴스룸> 경쟁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예능은 오랜 숙원이었던 일요일 저녁 예능과 평일 밤 11시대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교양과 라디오도 경쟁사들과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모두가 축하할 일은 우리의 숙원 과제였던 중간광고가 드디어 곧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중간광고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차별규제의 사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명예회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중간광고 시행을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과 1등 방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SBS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드라마는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대 자본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본의 힘으로 드라마 제작요소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 된 드라마 제작 환경 속에서 스태프들 구하느라, 근로시간 단축 지키느라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의 높은 중계료로 인해 경영상 적지 않은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늘어가고 수익은 답보 상태입니다. 광고 판매도 경쟁사들보다는 월등히 앞섰지만, 국내 경기 하락의 여파로 4분기부터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광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분

들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드라마와 광고 부문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SBS 가족 여러분!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미디어 산업 구조의 해체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SBS 고객들은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더 이상 채널에 의미를 두지 않고 TV가 아닌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사는 이제 지상파나 종편이 아니며,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포털과 CJ 같은 콘텐츠 대기업,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와 통신 3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산한 콘텐츠를 규제가 없는 우월적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자본의 힘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여 길러낸 인재들뿐 아니라 작가, 배우, 제작사 등 제작요소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만드는 콘텐츠 경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광고 판매 성과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담할 수 없습니다.

SBS 가족 여러분!

SBS는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평균수명이 33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기업 나이로는 이미 중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못된 예측과 혁신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요즘의 미디어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실시간 시청률이 보장해주던 안전한 우물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SBS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서, 다섯 개의 콘텐츠 제작사의 연합 OTT인 가칭 '그랜드 플랫폼'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논의가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CJ보다는 늦었지만, 우리도 곧 드라마 스튜디오를 출범시키고 빼앗

긴 드라마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JTBC를 비롯해 새로운 스튜디오들도 곧 등장할 전망이다.

SBS는 1조 원 가까운 자산과 연 8천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빅 이벤트가 있는 해는 영업적자를 벗어나기 어렵고, 평년에도 2%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CJ E&M의 콘텐츠 부문은 4조 원대 자산과 연 2조의 매출, 그리고 4%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6~10%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의 물량 공세는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중소 콘텐츠 제작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경쟁사들과의 합종연횡을 통한 과감한 OTT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켜내고 안정된 수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적자로 전환된 드라마 부문을 분사시켜 드라마왕국의 명성을 되찾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SBS 가족 여러분, 이제 내부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내부갈등이 끊이지 않는 회사가 잘되는 경우는 기업의 역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현 경영진의 모든 경영 판단의 중심에는 SBS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와 사와 대주주라는 세 개의 축이 반목과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를 지지해주는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1등 경쟁력은 노와 사, 그리고 대주주가 서로를 믿고 응원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 같은 것입니다. 계열사 거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미래를 향해 노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상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업을 콘텐츠 생산이라는 산업 영역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업의 기본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면에 계속)

정통 멜로의 진수_ SBS 특별기획 <운명과 분노> 12월 1일 첫 방송



이민정, 주상욱 주연 특별기획 <운명과 분노>(극본: 강철웅, 연출: 정동운)가 12월 1일(토) 밤 9시 5분에 첫 방송된다.

<운명과 분노>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운명인 줄 알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목적을 위해 남자를 차지하려는 여자와 복수심으로 그 여자를 되찾으려는 남자 등 네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과 분노를 담은 현실성 강한 격정 멜로 드라마이다.

이민정은 미모와 재능을 겸비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두 디자이너 구해라 역을 맡았다. 구해라는 아버지의 사망과 언니의 자살 미수, 사채업자의 빚 독촉 등 계속되는 불행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 태인준을 만나 온 몸을 던져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고자 한다. 주상욱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구해라를 운명이라 믿고 사랑하다가 진실을 알고 분노하는 골드제화의 사장 태인준을 연기한다. 아버지의 첩이었다가 후처로 밀고 들어온 계모 한성숙(송옥숙 분)과 이복 형 태정호(공정환 분)를 누르고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골드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예능에서 선한 이미지를 보여준 소이현이 악녀 차수현으로 분한다. 부동산 졸부의 딸 수현은 재벌가 입성을 위해 태인준과의 결혼에 방해가 되는 구해라를 짓밟는다. 이기우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차수현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진태오 역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태인준의 아버지이자 골드그룹의 회장 태필은 역은 고인범이 맡고, 남편 태정호와 시어머니 한성숙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는 태정호의 아내 고아정 역은 심이영이 맡았다. 또 구두 장인이었던 구해라의 아버지 구동석 역은 정규수, 해라의 언니 구현주 역은 차수연, 해라의 옆에서 그녀를 돕는 친구 강선영 역은 정수영, 강선영의 남동생 강익건 역은 윤학, 해라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채업자 김창수 역은 허준석이 맡아 열연을 펼친다.

격정적인 사랑과 분노에 휘말리는 스토리를 통해 정통 멜로를 보여줄 <운명과 분노>는 12월 1일(토) 밤 9시 5분에 첫 방송된다.

아침연속극 불패 신화 이어간다! 강남스캔들 11월 26일 첫 방송

SBS 아침연속극

강남스캔들

kangnam scandal

11월 26일(월) 첫 방송되는 아침연속극 <강남 스캔들>(극본: 박혜련, 연출: 윤류해)은 엄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철부지 재벌 상속남을 사랑하는 척했던 여자가 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다.

남녀 주인공인 은소유, 최서준 역은 신고은과 임윤호가 맡았다. 뮤지컬계의 디바 신고은이 맡은 은소유는 LX그룹의 계열사 LX엔터의 스타일리스트로, 아픈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악바리다. 소유는 우연한 사건으로 최서준을 사랑하는 척하며 재벌들의 권력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임윤호가 맡은 LX그룹 황태자 최서준은 뛰어난 성과로 언론과 업계의 주목을 받지만 실은 주변에서 만들어준 것일 뿐, 일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진실한 사랑은 없다고 믿는 철부지 재벌 후계자다.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찬 뉴페이스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서준과 은소유 사이에 자리 잡은 흥세현 역은 서도영이 맡았다. 외모와 매너, 능력을 다 갖춘 세현은 미혼모인 엄마에게 빛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효자지만 자존감은 바닥이다. 그에게 행복했던 기억은 어린 시절의 첫사랑

소유에 대한 기억뿐이다. 세현의 어머니이자 LX그룹의 고문인 홍백희 역은 방은희가 맡았다. 홍백희는 LX그룹을 지금의 재벌 반열에 올려놓은 공신이지만 최 회장이 이를 무시하자 소유를 이용해 거대한 풍랑을 획책한다. LX그룹 최진복 회장으로는 임채무, 최 회장의 여자인 장미리 역으로는 견미리가 출연한다. 또 서준의 누나와 매형으로 이유진, 김광민, 문서연, 원기준이 출연하여 재벌의 민낯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그밖에 소유의 엄마 역으로 추귀정이, 동생 소담 역으로 해인이 출연하며, 황보미는 극중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 없는 부잣집 막내딸이자 잘 나가는 아나운서 명지윤 역으로 출연하여 최서준을 손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열연을 펼친다.

재벌의 민낯과 그들의 변화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알리는 좌충우돌 눈물 로맨스 <강남 스캔들>은 11월 26일(월) 아침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1면에 이어)

우리 앞에 놓인 52시간 근무제는 SBS의 생산 환경을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나오는 상상력과 창작 욕구를 기계적인 시간 제한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도록 회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PD와 기자들을 아마추어 셀러리맨이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키워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SBS가 아닌 타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태호 PD가 없는 MBC, 나영석 PD가 없는 tvN, 손석희 앵커가 없는 JTBC는 지금의 위상과 전혀 다른 방송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키는 일은 방송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상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의 성격에 맞도

록 일과 휴식이 인간적인 조화를 이루는 문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화, 구성원들을 진정한 프로로 키우는 조직 문화를 우리 노사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의 대가를 회사는 적극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SBS 가족 여러분!

SBS는 창사 이래 수많은 위기를 노사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SBS는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회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SBS가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존중받고 모두가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구성원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론사 최고 수준의 공정방송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낸 아이디어에 회사는 상생의 정신으로 화답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SBS 노동조합이 SBS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지원부서 여러분들에게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SBS 미디어 그룹의 계열사 임직원들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SBS가 있기까지 지난 세월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던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SBS를 향해 다시 뜨겁게, 함께 나아갑시다.

팬들의 전쟁 더 팬

THE FAN

<더 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신기원을 연다

<K팝스타>, <판타스틱 듀오>를 뛰어넘는 신개념 음악 예능 11월 24일(토) 첫 방송



<K팝스타>의 박성훈 PD, <판타스틱 듀오>의 김영욱 PD가 기획, 연출을 맡고, <판타스틱 듀오>의 유럽 상륙을 이뤄낸 프랑스의 세계적인 포맷 프로덕션 '바니제이 인터내셔널'이 공동 기획한 <더 팬>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두 사람은 11월 14일(수), 유희열, 보아, 이상민, 김이나가 참석한 가운데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더 팬> 제작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음악예능의 탄생을 알렸다.

<더 팬>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심사위원이 아닌 대중이 참가자들을 평가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신개념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다. <K팝스타>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유희열과 보아,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 이상민, 대세 작사가 김이나는 심사위원이 아닌 '팬 마스터'로서 예비스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영입하여 대중에게 내놓는 역할을 한다. 심사는 대중의 몫으로, 대중이 직접 참가자들의 가능성을 평

가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즌 2를 끝으로 <K팝스타>를 떠났던 보아는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데 대해서 "뻘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고민 없이 선택했다. 사심을 가득 담아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다"고 말했다. 유희열은 "<더 팬>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최초의 팬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를 음정, 음색이 아니라 '저 사람이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지켜본다. 팬 마스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상민은 "내가 하는 음악과 팬으로 좋아하는 음악은 다르다. 팬으로서 참가자들을 보다 보니 그 사람의 제스처, 말투까지 보고 얘기하게 돼서 정말 다른 형태의 음악 예능일 것 같다"고 전했다. 김이나는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떤 친구가 완벽해도, 정작 인기는 다른 친구가 많은 경우가 있다. 그게 항상 미스터리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가지는 호감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팬 마스터의 '개취'(개인의 취향)를 알아보고, 예비 스타의 실력과 대중이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큰 재미를 줄 전망이다. 이들뿐 아니라 도끼*슈퍼비, 윤도현, 한채영, 윤미래, 타이거 JK, 서효림 등이 예비 스타를 추천하는 '셀럽'으로 출연한다. 이들이 추천한 예비 스타는 누구일지 유추해 보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이다. 대중의 투표와 바이럴 집계를 통해 최종 우승을 겨루는 신개념 음악 경연 프로그램 <더 팬>은 11월 24일(토) 오후 6시에 첫 방송된다.

프리미엄 웹드라마 잇따라 공개 <갑툭튀 간호사>, <농부사관학교>



2018년도 하반기 '프리미엄 웹 콘텐츠' 제작을 선언한 '모비딕'이 공들여 준비해온 웹드라마를 연달아 선보인다. 첫 주자인 <맨발의 디바>가 이미 공개된 가운데, 후속 주자인 <갑툭튀 간호사>와 <농부사관학교>는 촬영을 마쳤으며, <며느라기>는 대본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10월 말 촬영을 마치고 12월 공개 예정인 <갑툭튀 간호사>는 우연한 사고로 죽음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간호사와, 오직 성공만이 행복이라 집착하는 정신과 의사의 힐링 판타지 드라마다. 인피니트 성승과, <기름진 멜로>, <72초 드라마> 등 TV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활약으로 최근 드라마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장희령이 호흡을 맞춘다. 내년 초 공개를 목표로 전주에서 촬영을 마친 <농부사관학교>는 배우를 꿈꾸던 여학생이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하면서 농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따뜻한 성장 드라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와 신인배우 이태환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웹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활약이 어디서도 본 적 없었던 '친환경 힐링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시집살이라는 주제로 큰 반향을 일으킨 웹툰 <며느라기>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도 내년 1분기 촬영을 위해 대본 집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양성평등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또 하나의 화제작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양세형의 쏘티뷰>, <김기수의 예상그살>, <박나래의 복불쇼> 등으로 웹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모비딕이 웹드라마를 통해 또 어떤 신선한 시도를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SBS 파워FM_적수 없다!

15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



SBS 파워FM(107.7MHz)이 15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15년 2라운드부터 무려 3년 8개월 동안 1위 자리를 지킨 셈이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8년 4라운드 MRS(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은 채널별 점유 청취율 22.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TBS 교통방송과 MBC AM은 14.6%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SBS 파워FM은 13~59세 타깃 점유율에 서도 25.7%로 1위에 오르며 청취율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았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 순위 5위권에 <두시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 FM>, 그리고 <붐붐파워>까지 SBS 파워FM 프로그램이 3개나 이름을 올려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활기찬 진행으로 웃음을 주는 <두시탈출 컬투쇼>와 <붐붐파워>를 비롯해 <조정식의 편편 투데이>, <박선영의 씨네타운>, <박소현의 러브게임>, <배성재의 텐>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SBS 러브FM 역시 점유 청취율이 1%가 넘는 프로그램이 <이숙영의 러브FM>, <김용민의 정치쇼>,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 등 네 개나 돼, 지난 3라운드보다 2배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18년 4라운드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1.8%p, 신뢰 구간은 95%다.

<2018 창사특집 희망TV SBS> 16억 8천만 원 모금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2018 창사특집 희망TV SBS>가 지난 16일(금), 17일(토) 양 일간의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8 창사특집 희망TV SBS>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희망을 선사하며 새로운 나눔 문화를 선보였다.

다채로운 콘텐츠로 따뜻한 웃음 선사

<2018 창사특집 희망TV SBS>는 새롭고 다채로운 콘텐츠

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라이온킹 프로젝트>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는 재능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앞으로 '희망TV SBS'는 <라이온킹 프로젝트>를 통해 재능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응원할 것을 시청자들과 약속했다. 특집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아빠 육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혼자 하면 힘든 육아지만, 함께하면 든든한 육아'가 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최고의 육아 아빠를 찾아라!'에서는 약 400여 건의 영상 응모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SNS 투표 참여로 2018 '최고의 육아 아빠'를 가려냈다.

우리가 나눔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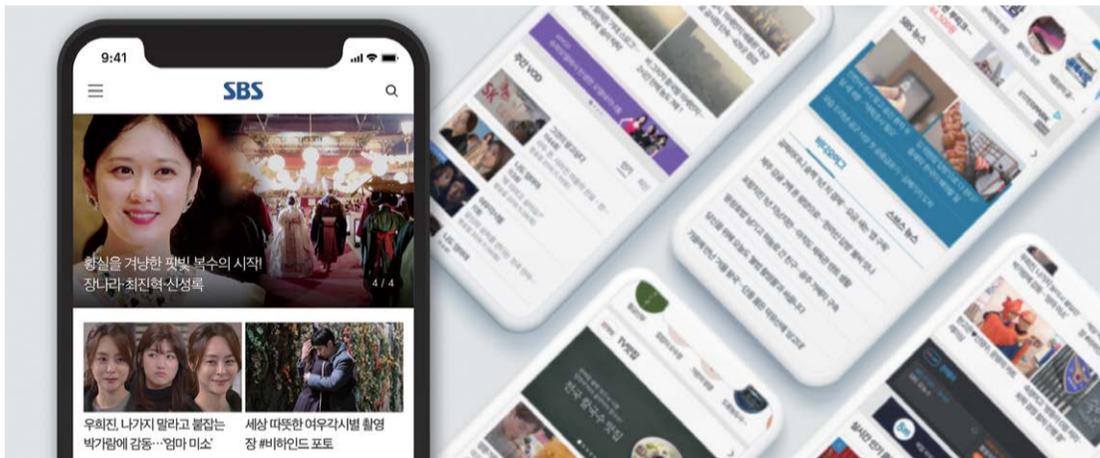
배우 박상원, 김인권, 오윤아, 이소연, 장희진, 남보라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배우 박상원은 르완다 내전 난민 출신 의사 미래일을 말라위에서 만나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과 나눔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배우 이소연은 '아프리카 생명 최전선, 차드 병원에서의 기록'을 통해 차드 병원의 24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며 열악한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편, 이번 <2018 창사특집 희망TV SBS>는 2,300건 이상의 기부 약정이 체결돼 16억 8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 돈은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데 사용된다.

SBS I&M 2018 SBS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최적화/실시간 추천/클라우드 구축



SBS 모바일과 PC 홈페이지(www.sbs.co.kr)가 지난 8일 새 단장을 하였다. 기획, 디자인, 개발단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개편 스크럼은 4개월간 협업한 끝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탄생시켰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모바일 환경을 우선하는 UX 개선', 'SBS 콘텐츠의 실시간 추천 자동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보기 쉽게 심플한 모듈형 모바일 UI를 구현했고, 이는 다양한 콘텐츠 특성에 따라 맞춤형 모듈로 보인다. 단 한 번의 클릭 없이, 실시간 SBS TV와 라디오 온에어 방송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방영작 뿐만 아니라 인기 종영작도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또한, SBS의 명작 <모래시계>, <시크릿 가든> 등 추억의

VOD를 큐레이션하는 영역을 마련했다. TV에 나온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TV 맛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영상을 모아보는 '스타채널', 가볍게 즐기는 웃음 유발 콘텐츠 'S'찐방' 등 S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도 이번 개편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실시간 인기 클립과 VOD 등 사용자에게 인기를 끄는 콘텐츠도 자동 추천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의 의미는 성공적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사용자 유입 기반의 비용 절감과 개발과 운영 안정성 확보, 속도 개선을 이루었다. SBS I&M은 2017년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이어 2018년에도 단계적 클라우드 시스템 적용을 성공리에 이어가고 있다.

<런닝맨 히어로즈> 벅스코에서 첫 공개



'애니메이션 런닝맨'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런닝맨 히어로즈>가 지난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 G-STAR에서 첫 공개됐다. 시연 부스를 방문한 관객들은 최종 보스를 공략하는 '스토리 모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진행되는 '배틀로얄 모드', 3대 3 팀으로 나눠 전투를 치르는 '스쿼드 모드' 등을 경험하며 원작의 탄탄한 세계관과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게임으로 만나는 색다른 재미를 만끽했다. 또한 17일(토)에는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 도티가 게임을 시연하고, G-STAR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주인공 '리우'와 '미요'의 탈인형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라인프렌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 <런닝맨 히어로즈>는 연말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거쳐 2019년 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12월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총무팀 이광희 차장이 12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이광희 차장은 1992년 총무부로 입사하여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일과 타인을 대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SBS 시설물의 대부분에 이광희 사투의 노고가 스며들어 있다. 안식년에 들어갈 때까지 탈도 많았던 제작 업무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힘찬 인생 2막을 위해 오늘도 열공 중이다.